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원조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go.kr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0.

문의: 홍보실(T. 031-7400- Fax. 031-7400-655)

우 481-3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시흥동298) <http://www.koica.go.kr>

제목 : 서울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의 준비 공동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2011년 제 4차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 회의(HLF-4) 준비를 위한 공동연구의 중간보고 워크샵 "Catalyzing Development: A New Vision for Aid"이 7.29(목) - 30 (금)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은 HLF-4의 개최국가로서 원조효과성 향상 국제 파트너십의 근간이 되고 있는 파리선언(2005년 HLF-2에서 채택)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서울 선언(SD)에 담긴 콘텐츠 발굴을 주도해야 하고자, KOICA, JICA, 브루킹스 연구소 공동으로 작년 말부터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준비 공동연구'를 추진해왔다.

본 공동연구는 Aid의 새로운 도전과제, 새로운 참여자,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기후변화, 역량강화, 취약국, 국제개발 NGO, 기업, 비 DAC 회원국,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 남남협력, 투명성, Scaling up이라는 10개의 소 주제와 전체적 논의를 요약하는 "Aid Works" paper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구의 중간 보고 차원인 동 워크샵에는 10개 연구 주제의 담당 연구진과 학계, 공여기관,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개발 협력 전문가들이 참여, 세션별로 저자들이 연구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각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는 정책연구실 정우진 상임연구원과 이현주 위촉연구원이 각각 "Aid Works"와 "남남협력"을 주제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브루킹스 워크샵에서 연구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Aid Works는 원조가 수원국 주도의 장기적인 개발목표의 촉매제로 활용되었던 한국과 베트남 등의 성공적인 아시아국

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발원조가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 및 현재 원조효과성 담론의 의의와 한계를 조망한다. 남남협력 연구 부분은 최근 들어 기존 북남협력에 대한 보완 체제로서 각광받고 있는 남남협력의 효용성과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이러한 협력형태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는 브루킹스 연구소 윌펜슨 센터의 연구진 뿐 아니라 OECD-DAC와 세계은행의 원조효과성 담당자 및 JICA, USAID, AusAid 등 양자 공여기관 관계자, 그리고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Oxfam 및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 시민사회와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이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통해 추후 보완과정을 거친 연구들은 추후 10월경 세계은행 및 IMF 연간 회의 개최시 성과공유 작업과 함께, KOICA 개발협력 포럼 및 ODA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12월에 Event 등 출판 행사로 이어질 예정이다.